

SBM (Self Bible Meditation for Maturity) 해설

성숙을 위한 셀프성경묵상

I. SBM을 디자인하게 된 기초

- 1) 필요성 : 성도 스스로 하나님의 의중과 심정을 읽어 미숙에서 성숙으로 나아가야할 시대적 필요
- 2) 개발 과정 : 성경읽고 독후감 쓰기 → 개인 경건의 시간 (QT) → 귀납법적 성경연구 방법론 & 성경 강해설교 → 성경통독 → 그룹 성령터치 성경통독나눔 → 정점 성경통독 연구 방법론 → 성경 통권설교 → (거룩한 독서: 렉시오 디비나) → (큐인 성경묵상법) → (성숙을 위한) 셀프성경묵상 (SBM : Self Bible Meditation for Maturity)
- 3) 목적 : 살아계신 하나님과 통하는(의중과 심정을 헤아려드리는) 임재동행
- 4) 목표 : 성경읽기가 곧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사귄이 되도록 하는 것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중과 심정을 읽는 헤아려 가는 성숙 과정으로서)
- 5) 주의 : 성경 안내서가 성경 자체를 읽는 기회에 방해가 되거나 한계를 정해버리는 모순을 해결하기
- 6) 방법 : 간단한 일련의 지침만으로 성령의 조명을 받으며 진전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 7) 도구 : 한 장으로 된 무교재 셀프 성경묵상법 (오직 성경 한권만으로 충분하고, 스스로 해나갈 수 있도록 전수)
- 8) 초점 : 하나님 중심 — 말씀 중심 — 교회 중심 → (내 안의) 성령님 중심 — (기록된) 성경 중심 — (교회됨의 가장 기초) 가정 중심 → 시선과 관심을 보다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신자의 현실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풍성하고 신비로운 사귀를 염두에 두면서도) 연결점을 가질 수 있도록 안내
- 9) 과제 : 세대 통합 교재로 활용 가능하게 개발
- 10) 기대 : 인공지능 시대의 참 사람됨, 즉 영성, 하나님과의 소통, 창의성, 공감능력 등이 자연스럽게 개발될 것임

II. SBM의 특징

1. 성숙을 위해 디자인 된, 스스로 성경을 묵상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묵상법이다.
2. 교재가 없다. 그 만큼 단순하다. (가르치려 하지 않고, 공부하듯 하지 않는다면)
3. 성경 한권만으로 개인 묵상과 그룹 나눔 모임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았다. (인터넷 등 현대적 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
4. 타인의 안내 보다 스스로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경험을 쌓아가는 과정이 **흥미진진**할 것이다.
5. 성경 교재가 오히려 성령 본문을 접할 기회를 방해하는 모순을 극복할 수 있다. (우리는 조직신학에서 가르치는 '**성경의 총족성**', 즉 성경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 그대로를 믿지않는가?)
6. 기존의 정형화된 교육교재 등을 대체하거나 업그레이드된 교재로 활용할 수 있다.
7. 교재가 없고 **단 한 장의 지침서**가 있을 뿐이다. 이 모든 과정이 한 장의 묵상 지침으로 압축되었다. (스스로 묵상하기가 익숙해지더라도 문자로 된 이 지침을 계속 활용하면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스스로 지침을 보완해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8. 현존하는 개인 성경 **공부, 연구, 묵상의 총화**, 또는 그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9. 단순히 종합해 놓은 것은 아니고 **영적 성숙**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귀**으로 안내하는 지침으로 의도되어 있다.
10.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부터 받고 사람들로부터 확인받는 여러 차례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11. 단순하지만 단조롭지는 않으며 반복할 수록 영적 이해가 축적되고 영성의 깊이가 더해진다.
12. 묵상이 끝나면 내용이 이미지나 **동영상**으로 남는다. 저절로 기억되고 언제 어디서든 묵상을 이어갈 수 있다.
13. 묵상이 끝나면 **하나님의 의중과 심정**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된다. 매번 그 마음에 접촉하며 감격과 은혜를 경험할 것이다
14. 하나님의 의중과 심정에 이르는 성숙에 이르도록 디자인 되어 있다. 이 묵상 과정을 반복할 때, 하나님—사람—세상을 아는 지식이 축적되어 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될 것이다. (세계관, 가치관이 성경적으로 구축되어 간다)
15. 코 앞에 다가온 **4차 산업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스스로 든든한 성도로 구비되게 고안되었다. 공감능력, 창의력, 문해력 등이 개발된다.
16. **세대 통합**교재를 지향하였다. (누군가 어린이들에게 알맞게 변환시켜 주길 기대한다. 말씀과기도교회 주일학교에서 시도하고 있다)
17. 나눔 모임에서 개인 묵상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 (홀로, 스스로 묵상해 가는 방법으로 고안되었지만, 함께 하면 더 풍성하고 즐겁다.)
18. 나눔을 통해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19. 인도자가 할 일은 오직 일방적으로 가르치지 않도록 주의하는 일이다. 다양한 나눔을 **경청**하고 **응원**하는 역할이다. 일방적이지 않은, 주고받는 **대화**는 언제나 유익하다.
20. 인도자가 가르쳐서는 안된다는 지침이 그에게 어렵다면 어려운 방법일 수도 있을 것이다.
21. **성경 지식**은 덤으로 따라온다. 그 지식은 이미지와 동영상, 그리고 그 때마다의 **감흥**들로 보다 잘 기억될 것이어서 풍성함과 깊이를 더하게 될 것이다.
22. 진정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먹고 즐기는, 더 나아가서 나누는 **신앙생활의 행복**이 더해갈 것이다.
23. SBM를 경험하고 다른 성경 공부 또는 묵상 방법론을 공부할 수록 SBM이 성경적이고 통합적이며 성경이 가르키는 정점 또는 심점을 지향하는, 그러면서도 열린 방식임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24. 말씀이 송이꽃과도 같다는 것을 경험한다. 너무 꼭 빠지는 것을 절제해야 할 정도일 것이다.
25. 언제 성경 전체를 다 이런 방식으로 묵상하겠느냐고 물을 수 있다. 그러나 나뭇잎 한 장에는 계절이 다 담겨있다. 찢어진 성경 한 페이지를 간직한 성도가 평생을 고귀한 성도로 살아간 사례도 있다. 단 한번의 진지한 성경묵상이 그대를 영구적으로 바꾸어 놓을지도 모른다. 단 한 장의 묵상이면 충분할지도 모른다.
26. 성경 전체를 읽는 방식으로는 **성경통독**을 활용하고, 부분을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는 짧은 본문을 (약 1장 이내) 택하여 **SBM**을 시작해보라.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생생한 **사귀**이 되는 **경험**을 지금 시작하라. 부디 성숙에 이르러 하나님의 의중과 심정을 헤아려 드리는 **어른**이 되라!

III. 패러다임 관점에서 본, 셀프성경묵상(SBM : Self Bible Meditation for Maturity)의 중요성

* 인류 전체가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는 사고의 큰 틀 (과학혁명, 산업혁명 등)

	3차 산업사회		4차 산업사회 / 인공지능 시대	SBM 지침 / 성숙 방향
1	이성 중심 - 합리 - 냉철 - 체계화 능력	패러다임 대전환 혁명	감성, 영성 중심 - 느낌 - 따스함 - 공감능력	- 감성의 핵심은 느낌이 아니라, 공감능력에 있다. (연민) - 영성의 핵심은 종교성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통하는' 사이가 되는 것이다.
2	표준화 (정답, 고정, 형식)		독특성 (통계적 답, 유연, 본질)	무지개는 과연 '빨주노초파남보'일까? (색의 압기 보다, "아!" 하는 경탄이 더 값지다.)
3	가르쳐야 한다		지식으로 가르칠 순 없다. 접촉 기회를 준다.	가르치려 하지 않아야 한다. 대화한다. 마당을 열어준다. (전환 과정에서 안내 필요성은 있다)
4	획일, 경쟁 사회 공부 기능사 양산 (인간성 소멸)		협력, 협치 사회 체득 활약인 양성 (인간성 회복)	인간성(사람됨)의 첫 단추는 바로 영성, 즉 하나님과의 사귄다.
5	분화 (분리, 분업, 계별, 분석) - 측정가능 지수가 올라간다 - 생산력, 효율성, 지능, ...		통합 (통전, 통섭, 융합, 전체) - 측정 불가능 영역이 더 중요하다 - 시는 인간 모든 영역을 능가한다	분석 가능한 통합적 사고 합리적인 지성-영성 겸비 사고 시를 능가하는 신적 영감과 즐거움
6	감성, 창의성은 유익한 것이다		감성, 창의성은 생존 또는 정체성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특히 영성은 사람됨의 핵심이다.	하나님과의 사귄, 그런 사귄을 누리는 사람과의 사귄은 공감능력과 창의력, 그리고 영성을 개발시켜준다.
7	성숙(거룩과 세속)의 분리, 교회, 가정, 일터 등의 분리 모이는 예배, 흠여지는 예배 분리		성숙의 통합 가정—교회—일터 통합 동서양 통합, 좌우 사상 통합 과학, 신학, 예술 등 학문의 통합	표리부동 해서는 안된다. 가족과 성도, 동료에게 같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 통합적 역할은 '항상 전체를 복되게'
8	세대 계층 분리 교회의 세대 분리 (효율성)		세대 계층 통합 (다양성, 성숙성, 연결성)	세대 통합 예배 세대 통합 교제
9	역할 기능 중심 (부분적 전문성) 역할 분담 중요 (몰 인격적)		관계, 네트워크 중심 (전체적 안목) 자율, 자발성, 자원함이 중요 (인격적) 역할 순환은 경험 공감 효과	- 자발적인가? 수동적인가? - 살았나? 죽었나? - (맞나 틀렸나가 아니다)
10	유능함이 중요		성숙함이 중요. 태도가 경쟁력이 된다.	파편화된 유능이 성숙을 통해 화합, 조화 전체가 복되게!
11	진리 탐구 (대학) 과정 — 종교 진리 수호 (교회) 확정 — 성경		진리 상대화 (종교, 철학, 과학) — 성경 절대 진리는? (교회, 성경 권위의 위기)	절대 진리는 '기록된' 성경 —> '기록하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12	하나님—말씀(설교)—교회 중심		성령 중심 — 성경 중심 — 가정 중심 (삼위일체의 페리코레스시스)	교회가 성도를 끌어들이어 교회에 묶어두는 현상은 안된다 —> 각자의 영역에서 임재동행 할 수 있게!
주의 사항	1) 패러다임은 거스릴 수 없는 것이다. 저항하면 고통스럽거나 의미없는 소멸을 의미할 뿐이다. 2) 패러다임 대전환을 준비해야만 한다. (한 분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사회 전반에 해당된다.) 3) 4차 산업사회는 3차 산업사회를 대체 한다가 보다는, 그 기반 위에 서기 때문에 1차 산업, 2차 산업 사회로부터 남은 영역들 처럼 끝까지 남는 영역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도적인 영역은 결코 될 수 없다.) 4) 패러다임의 역사적인 변화는 인간의 성숙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의중이 느껴진다.) 5) 교회는 가정, 일터, 국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리더들을 온전히 구비시키는 사명을 수행한다. 교회는 목사님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연합이다. 우리가 교회다! 우리가 리더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차세대 리더를 구비시켜야 한다. 6) 성경묵상은 우리가 성장, 성숙하게 돕는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이고 그 핵심은 '성숙을 위한 셀프 성경 묵상법' SBM이다. 7)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다섯가지 요건 1) 스스로 말씀을 섭취할 수 있는 능력 (SBM, 큐티 등) 2) 앞선 사람에게 영감, 비전, 자극과 격려 받기 (설교 등) 3) 동료들과 꾸준히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협력하기 (함께 하기, 양육 프로그램, 체계 등) 4) 일방적이 아닌 대화를 통해 자기를 돌아보는 피드백 능력 (사귄, 설교 나눔, SBM 나눔 모임 등) 5) 직접 경험을 통해 지금의 한계를 넘는 확장 기회 (여행, 비전트립, 역사탐방 등) 6) 간접 경험을 통해 지금의 한계를 넘는 확장 기회 (독서, 영화 관람 등) 7) 성령의 재충만을 위한 믿음의 말씀, 사귄의 기도 (쉽게 전수할 수 있는 신앙개념 등)			